

연중 제34주일
그리스도 왕 축일

기도서 P. 482 B해

제1독서(다 니 7, 13-14)
제2독서(묵 시 1, 5-8)
복 음(요 한 18, 33-37)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나는 王이다”

김 태 윤 신부

우리는 한자(漢字)를 뜻글자(表意文字)라 한다. 글자 하나하나가 사물의 모양을 따서 뜻을 전한다. 어떤 글자는 기묘한 뜻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심오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한다.

임금 王字의 글자풀이를 나름대로(?) 해본다. 王字의 첫 획(一)은 하늘을 뜻하고 마지막 획(一)은 땅을 뜻하는 것 같다. 그 사이에 열십자(十) 표시가 있어 王字가 이루어진다. 이렇고보니 王은 하늘과 땅을 연결(十)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인것 같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의 뜻을 하늘에 전해주는 중재자인 셈이다. 백성을 하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王이라 주장하신다(요한 18, 37). 과연 예수께서는 王이 뜻하는 글자 그대로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러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一)과 땅(一)을 십자가(十)로 이어 주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王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王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전권(全權意識)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이 王은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으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천대받는 자, 소외된 자를 위한 삶을 사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이들 위해 모든이의 십자가를 지신 王이셨다. 그리하여 만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王으로서 영원히 만백성과 함께 살아계신 王으로 군림하게 되시는 것이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의 왕직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왕직이다. 물론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분 뿐이지만(마태 23, 10), 위정자로서, 지도자로서, 직장에서의 상사로서, 평신도 사도자로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왕직을 지닌다. 왕은 결코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봉사하는 자로서 왕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요구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말이다. 왕이라고, 권력자라고 국민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한다면 진정한 왕이랄 수 없다. 칠복가운데 견디는 백성들은 더 큰 뜻을 하늘에서 찾는다. 民心이天心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칠복을 더 중시 해야하며 그들의 뜻을 갈파해야 한다. 이제 맹종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백성들이 막걸리 한잔에, 고무신 한켠에 권리를 팔아 넘겼던 시기는 지나갔다. 아직도 있다면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도자는 하느님의 중재자로서, 십부름꾼(로마 13, 4)으로 임할 때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에서 신자로서, 국민으로서, 교직자로서, 위정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겠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아 많이 아홉 20년을 넘기지 못하는 극히 유한한 세상의 권세에 아합하지 말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주신 영원한 王,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 귀의하기로 굳게 다짐 해야겠다.

“당신이 왕이요?”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했다.(요한 18, 37)



마음으로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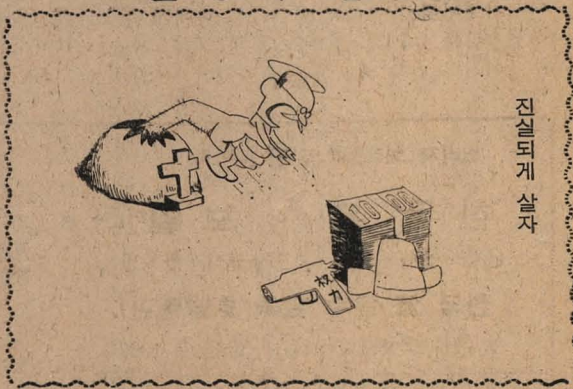
최근 국내의 매스컴들은 우리나라의 새 여당 당수가 야당 당수들을 방문하였다 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훈훈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목말라 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희망으로 부푼 이 마당에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일이 구질구질하게 들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지난날의 가슴아프고 슬펐던 이야기들을 두고두고 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아픔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무어라고 말해도 우리에게는 아픈 어제가 있었다.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서운 세계 경쟁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학생들의 등급이 뉴스거리로 등장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가 있는가? 왜 이래야 했던가?

아름던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새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만나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없이 만나서 대좌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시간낭비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알파한 술수는 뺨뺨에 들어나 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의미로는 정치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정치풍토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저마다의 생업에 충실하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만나자.

숲정이 산책



진실되게 살자



건강하게 자라야지...

한 상 갑

□ 주여, 어찌하여...

아버지, 당신이 주신 제 둘째 아이는 세상에 난지 3년 반도 안되어 「악성 임파 종양(소위 癌)」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그 어린것에게 그리도 가혹한 아픔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저에게나 그런 고통을 주실 일이지...

수혁(秀赫)이는 지난 여름에 감기처럼 앓았습니다. 전주 성도병원과 전북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어도 39도를 넘는 열은 쉽게 떨어질줄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깨 부위에는 배추리알 크기만한 덩어리가 잡혀졌습니다. 또, 간도 잡혀치고 배에도 단단하게 잡혀졌습니다. 이제는 서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는 교과서에도 그 유형이 소개되지 않은 「악성 임파 종양(惡性 淋巴 腫瘍)」. 예후(豫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담당 교수의 말씀에는 한마디로 하늘이 잠잠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친구인 의사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대를 가지다가는 실망이 더 클 것이다.”고 강한 주사약(MTX)의 부작용으로 입안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침조차 삼킬 수가 없으니 코에 튜브를 꽂고 주사기로 미음을 넣어 주어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것을 하다보니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아”, “으응” 하기만 하니 딱하기도 하고 미용기조차 했습니다. 신경질이 마구났습니다. 불가(佛家)의 논리로 말한다면, 이게 무슨 업보인가?

□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49%의 가능성을 놓고 나는 수혁이의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치료해보자면, 뒷일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나에게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매달리는 동안 루르드의 <기적의 물>이 생각났습니다. 1975년에 루르드에서 가져온 물은 이제 한방울도 안남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나누어 주었던 그 물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남겨두었다 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너무나 쉽게 풀렸습니다.

현양대회 준비(응변대회)를 위해서 다룬때 보다 하루 빠르게 주일날 새벽 전주에 도착한 나는 미사에 참례하기 위하여 분당을 찾았습니다. 밤차의 피로에 봉헌예절 때까지 졸던 나를 본당신부님이 미사끝에 부르셨습니다. 사제관에서 서서기 신부님은 나에게 루르드의 물을 주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느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가르침을 푹푹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 저는 불효자입니다

막상 수혁이의 치료를 결심하고 보니 노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관지와 위가 나쁘셔서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이 탓도 있겠지만, 먼 길은 걸지도 못하시고 밥상조차 제대로 들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자식인 나는 무엇을 해드렸는가 하는 부끄러움에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와 제 동기간을 기르시느라 속옷 한벌을 새로 사 입으시기를 망설이고, 맛있는 반찬 한가지 마음대로 못잡수신 그분들이었습니다. 또, 마음의 짐이 되어드리기가 몇번이었던가. 나를 위해 가슴조이시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그분들에게 남은 것은 육체의 고통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라 제자식에게 더 큰 점수를 주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 사랑의 빛

수혁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연로하신 현석호 회장님과 한몽연 회장님, 내가 몸담아 있는 해성학교 교장 신부님, 전국 평협 임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주교님을 위시하여 교구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크게 염려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습니다. 금년에 성심여고를 졸업한 미경양은 문병왔다가 피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에게 죄책하게 빚을 질머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이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들어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재삼 확인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기에 더욱 의롭지 않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두 대학병원의 병상에 누워지낸지 84일만인 지난 10월 26일 수혁이는 퇴원을 했습니다. 말문을 담은지 63일만인 지난 11월 5일부터 수혁이는 “엄마”와 “할아버지”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 둘 셋”도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도 잘먹고 전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누나들, 기도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느님을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느님을 알았기에 나는 그분에게 매달리며 신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느님, 수혁이는 앞으로 2~3년동안 매주 한차례씩 항암제 주사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켜주시기에 두려움없이, 당신이 제게 맡기신 수혁이를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 (평협 사무국장·해성중 교사)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크로레라-一元?

★ 약 알카리성 특수 고단백 식물성 영양식품으로 여러분께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 C.G.F(성장발육 촉진인자)라고 하는 특수 물질이 들어 있어 스테미너 증강, 항균력 배양, 환자의 건강회복, 허약 아동의 발육촉진,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은 약 알카리성 제질개선 식품으로 전국에 걸친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앞 T.3-2611

이리시 주현동 동사무소앞 T.2-7641

이 석 구(토마스 아퀴나스) 배상



홍성 교도소에 다녀와서...

—문정현 신부 면회記—

조 겨울의 쌀쌀한 날씨. 천리길을 달려온양 못지않게 약간은 설레이는 맘을 느껴야 했다. 홍성 형무소 정문에 들어서니 정문 보초가 마치 교통순경 손짓으로 무조건 통과였다. 소장실에서의 대기는 문신부님의 옛 모습만 어른거리게 할뿐—어떤 모습일까? 이윽고, 선뜻 들어선 문신부님—얼굴보다 수인번호가 먼저 돋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1003번」—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파란 죄수복에 하얀 수인번호가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했던 것이다. 마침, 운동을 하다가 오셨다고, 주교님과 동행한 10여명의 우리를 보셨을 때 어리둥절한 모습이, 그러나 힘차게 뛰어주는 손은 그래도 따뜻했다.

무엇부터 물어볼까—무조건 건강은 어떤진지요?

그 까마잡잡하셨던 얼굴이 생각보다는 수척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다행일까? 오히려 상기된 얼굴 모습은 그만큼 내적인 평온을 유지하시는 모양이다.

“정말 좋은 피정입니다. 마음의 동요없이 차분하게, 지내온 생활을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기도, 한알 한알 굴리는 묵주알에서 사제로서의 집짐을 다시하는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두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시는 주교님께 그 특유의 못난(?) 허스키 목소리에서 오히려 만남의 반가움과 함께 서로는 웃을 수 있었다.

교구 소식과 바깥 세상의 일들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교님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래도 총총한 눈빛을 잃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다리가 조금 안좋으시란다. 그래도 시간을 마쳐서 운동도 하고 늘상 책을 읽으시면서 기도와 묵상속에 매일을 조용하게 지내신다는 말씀은 웬지 숙연해졌지만 그러나 무척 다행이었고 건강과 함께 영성의 깊이를 더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생각보다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음이 다행이었다. 오랜만의 만남이어서 그동안 쌓였던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길길은 멀고 시간없음이 못내 아쉬움을 더했다.

기쁜 희망과 함께 조만간 같이 살게 되리라는 주교님의 격려의 말씀과 따뜻한 어깨 두드림을 동행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했다.

커다랗게 검은 철대문에 들어서기 전, 신부님의 마지막 손짓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고 생기넘치는 모습에서 무언가 안심스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신부님 기쁜 그날까지 건강하소서”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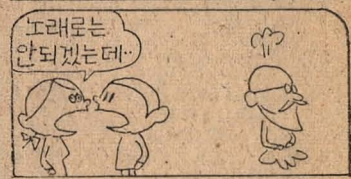
사목교서 연수회 개최

지난 11월 13일 추계 사제총회가 개최되었고, 80년도 교구사목 방향과 방침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제총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한 80년도 교구장님의 사목교서가 발표되고 그 교서에 따른 사목지침이 제시될 <사목교서 연수회>를 27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제위 신부님들과 수도자 각 본당 사도회장님께서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79년 11월 27일 10시 장소 : 가톨릭센터 회의실

요심이 (330)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오)

(이시계점 옆)

전화 6219

남성의 맛을 드립니다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철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발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李泰榮 씨 장남 東 玩 冠
梁容泰 씨 4녀 仁 昇 양

日時 : 1979. 12. 2. 11시30분

場所 : 老松 天主教會

主禮 : 金正元 神父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화양행

오중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점검,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가스상사

대표 최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5448 · 1071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금방

(금·은·보석·각국시계)

주이황수(바오로)

전주 남문열

전화 8188 (자 036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980년도 사목교서 연수회...27일<화> 10시, 가톨릭센터
※ 참가자...교구내 모든 사제, 수도자, 사도회장, 교구 산하 기관장
- 술정이가 다음주에 창간 7주년을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세요
① 신년도에는 교리상식란을 신설코자 합니다. 알고 싶으신 의견 주세요
지금까지는 김재본당의 조정섭(요셉) 선생님의 의견뿐입니다
② 편집방향이나 활자의 크기,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의견 주세요
- 제 3회 4지구 중 고등 학생회 성가 경연대회...25(일, 오늘) 오후 2시반, 전동성당
※ 제 노래책과 성가집 지참 바람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 감사드립니다

레지오 마리에 피미씨움...9만 5천원(현양대회 목주 190개)와 목주 10개, 서학동 손수복·정아지(각1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왕수태
보좌 신부 정이복
사도 회장 이복석

1. 상지회: 25일<일> 오후 2시
2. 유아세례: 30일<금> 어머니미사 후
3. 예비자(남자) 특별교리: 매주 월·수·요일
장소: 본당신부 사무실, 시간: 저녁 8시
4.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하세요
5. 회합실 난로 취급 잘합시다
6. 의복을 단정히 합시다(미사때)
7. 청년합창단 일일피정: 25일<일>
장소-노동동성당, 프란치스코의 집
시간-오전 8시~오후 5시
8. 방지거 삼회 피정: 12월 2일 9시
장소-중앙성당, 회비-1,000원 도시락 지참

□ 지난주 봉헌금: 259,490원

6. 학생 성가경연대회: 오늘 오후 2시30분(전동성당)
□ 결혼: 12월 2일 12시 신랑-방정혁, 신부-조귀남
□ 결혼: 12월 5일 12시 신랑-최인선, 신부-공미진
□ 지난주 봉헌금: 238,2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구

1. 애령주일: 10시미사 후 기도 있음
 2. 사도회장 선거: 10시미사 후
한분도 빠짐없이 정성된 마음으로 투표에 임합니다
 3. 가정방문: 13반-28일 기타반(대성리)-29일
 4. 견진자 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82,11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갈노

1. 요안회 월례회·신협미사회: 11월 25일 공식미사 후
 2. 부녀회 월례회: 12월 1일
 3. 청년회 월례회: 12월 1일 오후 7시
한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사도회 월례회: 12월 2일
입원·구역장·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79년도 사도회 마지막 월례회입니다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강용재·이성복·김영철·이훈·이정자(각10만원),
이희창(30만원), 소금순·김준태·라복순(각 5만원),
송정숙·양영순·주일학교 아동 일동(각 3만원), 윤
봉근(2만원), 한진섭(5천원), 조순봉·김유란·소양
문발바라(각 2천원), 유치원생 나모나(1천원)
- 지난주 봉헌금: 123,380원

(노동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김성복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상임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2.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교무금 납부
의 날입니다. 당신의 교무금은 완납되었습니까?
 4. 혼인미사: 오늘 정오 12시
신랑-진우(성남), 신부-최영숙
- 지난주 봉헌금: 172,99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욱
사도 회장 유제상

1. 사도회 확대회의: 12월 1일 오후 2시30분
구역장님, 사도회임원, 공소회장, 교문, 신임 사도
회임원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판공시에 세대주 사진(증명)을 한장씩 준비합시다
 3. 내동공소 판공: 12월 4~5일(2일간)
동산촌공소 판공 12월 7~8일
 4. 설탄 성가연습: 학생, 청년 토요일 오후 5시
많은 학생 청년 참석 바람, 지도-보좌신부님
 5. 밀린 교무금 납부하여 주님과 의 약속을 어기자 맙
시다
 6.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읍시다
주일 오후 2시에 교리가 있습니다.
많은 귀영동이 보내주세요, 3시미사
 7. 본당내 거주하시는 교우님들 빠른 시일에 교적을 옮
겨봅시다(덕진, 금암, 송진, 팔복, 동산촌, 전미동)
- 지난주 봉헌금: 25,150원 교무금: 159,6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종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 피정은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9일~10일로 연기
합니다
 2. 가정방문: 동·서 교동-11월 28일~12월 1일
 3. 12월 3일 본당 주수침례 행사
주일인 2일날 실시하겠습니다
 4. 동 대항 성가 경연대회(20명 이상)
지정곡-공동체49번(천지가 생기기 전)
자유곡-자유선량
 5. 사도회(저녁미사 후) 사도회 임원, 각 동반장, 신삼
단체장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6. 군인들에게 목주를 보냅니다(연락처: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265,02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추수감사 및 위령합동미사: 오늘 공식미사에 봉헌
합시다
2. 축! 영명 박성팔(안드레아) 신부님: 30일<금>
저녁 7시 축하미사 및 축하식에 빠짐없이 나와 기도
와 축하를 드립니다
3. 어린이들에게 매일 미사참례표를 주어 성탄 및 부활
주일예 특별시상 합니다(매일 미사에 꼭 보내주세요)
4. 연말이 가까웠습니다 밀린봉헌금 속히 완납합시다
5. 영화상영: "구세주" 오늘 저녁미사 후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부녀회: 오늘 미사후
 2. 사목교서 연수회: 27일 아침
 3. 가정방문: 수·목요일 있습니다
 4. 12월 2일부터 새 고백성사 예식대로 시행하는 날
입니다.
 5. 축! 결혼: 11월 25일 11시, 전동성당에서
최세호(다우)군
- 지난주 봉헌금: 65,495원 교무금: 115,000원